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7. 01. 30. ~ 2017. 02. 05.

전남농업정보

122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 겨울배추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동향, 수급대책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광양, 알스트로메리아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 한국 김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역대 최대 규모 달성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검정보리 특산화 주력
- ICT 접목 에너지 · 노동력 절감 패키지 기술 개발 추진

정책동향

- 전남도,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가격 공표
- 전남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본격 시동

사업신청 및 홍보

- 쌀 · 밭 ·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9~10일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3~1도, 최고기온 : 7~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과 비슷하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예보 : 시설작물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 과일썩음병, 총채벌레류, 응애류, 가루이류 등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품목별 동향 및 전망 ('17. 01. 31.~ 02. 06.)
- ▶ 겨울배추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동향, 수급대책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3

- ▶ 여수시, 여성 주도 6차산업 농촌 활기
- ▶ 순천시, 고품질 매실 생산기술 지도 앞장
- ▶ 나주시, 188곳 농경지 토양환경 정밀분석 착수
- ▶ 고흥군, 올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36억 투입
- ▶ 강진군, 자연이 주는 선물! 천연 짬뽕 채소 '바라후'
- ▶ 영암군, 무화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 3억원 추가 확보
- ▶ 함평군, 고품질 참깨 재배기술 교육 실시
- ▶ 영광군, 월동 후 맥류 재배관리 현장기술 지도 나서
- ▶ 완도군, 방울토마토 본격 출하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2

- ▶ 전남 광양, 알스트로메리아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 ▶ 한국 김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역대 최대 규모 달성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5

- ▶ 케일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분석
- ▶ 동부양금을 이용한 저당도 동부양갱 제조방법
- ▶ 농산물 꾸러미 사업 초기 소요자금과 참여농가 소득향상 효과
- ▶ 신선 및 냉동 대파 상품화를 위한 세척 전처리 방법
- ▶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검정보리 특산화 주력
- ▶ ICT 접목 에너지·노동력 절감 패키지 기술 개발 추진
- ▶ 전국 산업곤충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열다
- ▶ 감자 봄 파종은 이렇게 하세요
- ▶ 고구마 묘기르기, 건전한 씨고구마 선별이 중요
- ▶ 과수 가지치기 작업도구, 소독 후 사용하세요
- ▶ 우리 한우농장! 번식률 높이는 방법은

❁ 정책 동향 40

- ▶ 대한민국 차(茶)시장을 선도하는 『전남 유기농 녹차와 홍차』
- ▶ 전남도,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가격 공표
- ▶ 전남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 본격 시동
- ▶ 참깨·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 해외 농업정보 44

- ▶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 청년리더 70명 선발·파견
- ▶ 일본 유전자변형식품 대상 확대 검토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2. 06.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목요일 상승한 이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금요일 다시 하락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의 하락세에 이어 다시 소폭 하락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소폭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7

-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 올해 사용할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 ▶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1	2.5	-1.4	5.4	7.8	-2.5	-3.1	-1.8	-1.3	1.9
2. 09.(목)	1.0	1.9	-0.9	3.0	7.0	-4.0	-1.0	-2.1	1.1	1.7
2. 10.(금)	-1.5	2.0	-3.5	2.0	7.0	-5.0	-5.0	-2.0	-3.0	1.9
2. 11.(토)	-0.5	2.3	-2.8	4.0	7.5	-3.5	-5.0	-2.0	-3.0	2.0
2. 12.(일)	0.5	2.6	-2.1	5.0	8.0	-3.0	-4.0	-1.9	-2.1	2.0
2. 13.(월)	1.0	2.8	-1.8	6.0	8.2	-2.2	-4.0	-1.7	-2.3	2.0
2. 14.(화)	1.5	2.8	-1.3	6.0	8.3	-2.3	-3.0	-1.7	-1.3	2.0
2. 15.(수)	3.0	2.9	0.1	8.0	8.4	-0.4	-2.0	-1.6	-0.4	2.0
2. 16.(목)	4.0	2.9	1.1	9.0	8.3	0.7	-1.0	-1.4	0.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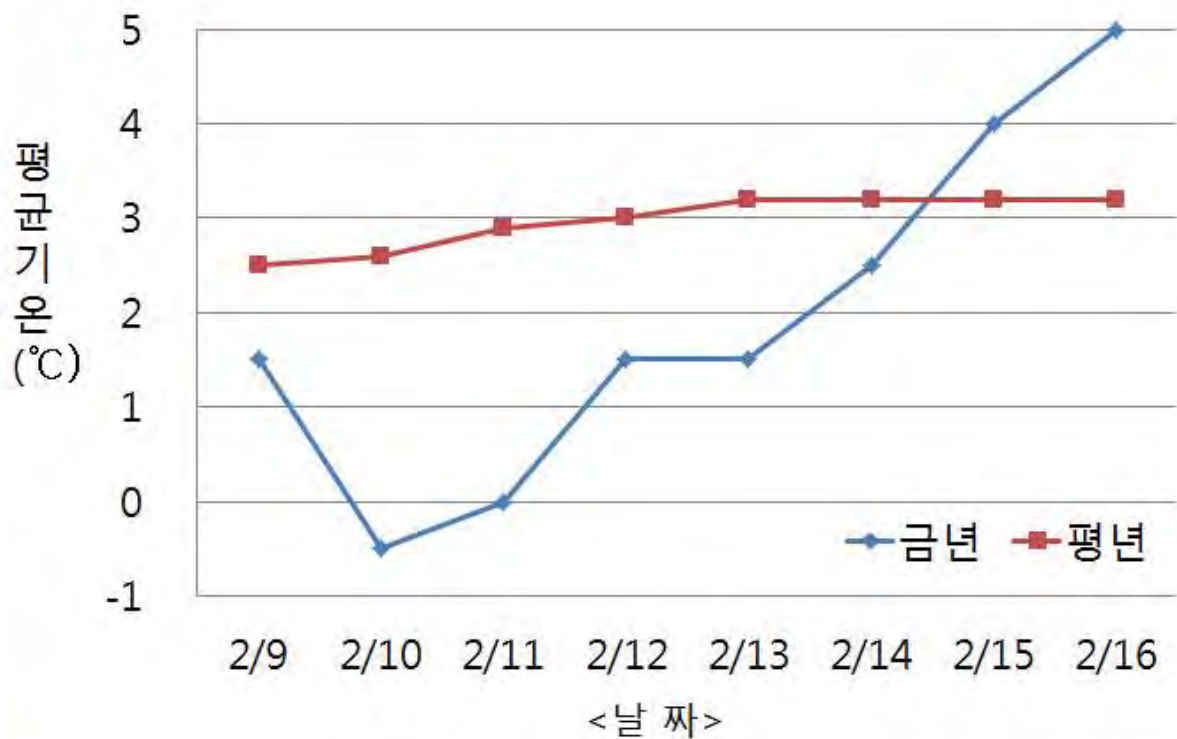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9	3.0	-1.0	5.1	7.9	-2.8	-1.3	-0.7	-0.6	1.6
2. 09.(목)	1.5	2.5	-1.0	3.0	7.2	-4.2	0.0	-0.9	0.9	1.4
2. 10.(금)	-0.5	2.6	-3.1	2.0	7.3	-5.3	-3.0	-0.8	-2.2	1.5
2. 11.(토)	0.0	2.9	-2.9	3.0	7.7	-4.7	-3.0	-0.8	-2.2	1.4
2. 12.(일)	1.5	3.0	-1.5	5.0	8.0	-3.0	-2.0	-0.7	-1.3	1.4
2. 13.(월)	1.5	3.2	-1.7	5.0	8.2	-3.2	-2.0	-0.6	-1.4	1.6
2. 14.(화)	2.5	3.2	-0.7	6.0	8.3	-2.3	-1.0	-0.6	-0.4	1.7
2. 15.(수)	4.0	3.2	0.8	8.0	8.4	-0.4	0.0	-0.5	0.5	1.9
2. 16.(목)	5.0	3.2	1.8	9.0	8.2	0.8	1.0	-0.4	1.4	1.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8	4.2	-1.3	6.4	8.5	-2.1	-0.8	0.6	-1.4	1.5
2. 09.(목)	1.5	3.6	-2.1	3.0	7.9	-4.9	0.0	0.2	-0.2	1.2
2. 10.(금)	1.0	3.7	-2.7	4.0	7.9	-3.9	-2.0	0.3	-2.3	1.3
2. 11.(토)	1.0	3.9	-2.9	5.0	8.3	-3.3	-3.0	0.4	-3.4	1.4
2. 12.(일)	2.0	4.2	-2.2	6.0	8.6	-2.6	-2.0	0.6	-2.6	1.4
2. 13.(월)	3.0	4.5	-1.5	7.0	8.8	-1.8	-1.0	0.8	-1.8	1.4
2. 14.(화)	3.0	4.4	-1.4	7.0	8.8	-1.8	-1.0	0.9	-1.9	1.6
2. 15.(수)	5.0	4.5	0.5	9.0	8.7	0.3	1.0	0.9	0.1	1.7
2. 16.(목)	6.0	4.4	1.6	10.0	8.6	1.4	2.0	1.0	1.0	1.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02. 01. ~ 02. 28.)

농촌진흥청은 토마토·오이·딸기·수박 등 시설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2월 중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잣빛곰팡이병, 흰가루병, 과일썩음병, 바이러스병, 노균병, 총채벌레, 응애, 꼬마배나무이 등의 병해충에 대해 예보를 발표하오니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보 : 시설작물 잣빛곰팡이병, 흰가루병, 노균병, 과일썩음병 등

- 적절한 보온과 환기를 실시하여 시설 내의 온·습도가 알맞게 유지 되도록 관리하며, 병에 걸린 잎과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하고 예방적으로 적용약제 살포
- 수박 과일썩음병 예방을 위해 건전한 종자와 대목을 사용하며 정식 초기 발견 시 건전모로 교체하고, 생육기에는 동제와 항생제로 관리

□ 예보 : 시설작물 총채벌레류, 응애류, 가루이류 등

- 시설에 발생하는 해충은 연중 발생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적기방제를 못하게 되면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발생초기에 철저히 방제

□ 예보 : 토마토·고추 등의 토마토황화잎말림병, 토마토반점위조병

- 토마토·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은 병원균을 매개하는 총채벌레, 담배가루이를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하고 병에 걸린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여 2차 감염 예방

□ 예보 : 과수 월동해충(꼬마배나무이)

- 2월에 기온이 높아질 경우 산란시기가 빨라지므로 국가농작물병해충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최적 방제시기에 맞추어 기계유유제 살포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품목별 동향 및 전망 (' 17. 01. 31.~ 02. 06.)

□ 배추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주의』 단계 전망

- 동향 : 설 전까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출하가 원활하여 전주(9,089원) 대비 하락세(8,174원/10kg)
- 전망 : 시세에 따라 노지출하와 저장작업이 병행되며 보합세 전망

□ 무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심각』 단계 전망

- 동향 : 겨울무 출하량 증가했으나 설 성수기 수요에 따라 전주(17,940원) 대비 보합세(17,581원/18kg)
- 전망 : 설 이후 수요 감소에 따라 전주대비 약보합세 전망

□ 건고추 : 수급조절 매뉴얼상 『하락경계』 단계 전망

- 동향 : 재고 충분하여 평년대비 낮은 가격(5,700원/600g) 수준 지속
- 전망 : 특별한 수급변동 요인 없어 보합세 전망

□ 간마늘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경계』 단계 전망

- 동향 : 재고부족, 명절 수요 등으로 전주수준 높은 가격유지(7,350원/kg)
- 전망 : 비축물량 판매 등 정부대책 영향으로 보합세 전망

□ 양파 : 수급조절 매뉴얼상 『상승주의』 단계 전망

- 동향 : 반입량 증가하였으나, 명절 수요 증가로 가격은 전주(1,234원)대비 소폭 상승(1,285원/kg)
- 전망 : 수요 감소하나, 출하조절 지속되면서 보합세 전망

겨울배추 생산동향, 출하 및 가격동향, 수급대책

□ 생산동향 : 겨울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대비 감소한 286천톤 전망

- 정식 초기 태풍 피해에 따른 면적 감소 및 이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 해남·진도 등에서 2월 하순까지 출하 예정이며, 현재까지 저온 등으로 결구가 미숙한 상황

□ 출하 및 가격동향

- (출하동향)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량은 전년(361톤) 및 평년(441톤)대비 증가한 456톤
 - 겨울배추는 대부분 전남에서만 출하되며, 해남 77, 진도 13, 무안 10% 수준
- (가격동향) 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감소·작황 부진 등으로 평년대비 강세 지속
- 겨울배추 도매가격

(단위: 원/10kg)

구 분	2016년 12월	2017년 1월		
		상순	중순	하순
가격	8,770	9,213	9,084	8,292

- 3~4월 출하를 위한 겨울배추 저장량에 따라 가격변동은 있겠으나, 봄배추 출하기인 4월 중순 전까지는 평년대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급대책 : 겨울배추 수급불안 대비 선제적 대응 추진

- (공급안정) 겨울배추 출하기 모니터링 강화 및 수급조절 물량(50,500톤)의 탄력적 공급과 대체품목 생산 확대로 가격급등 방지
 - 3~4월 단경기대비 시설봄배추 2,000톤 조기 출하 유도 등

*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2. 06.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06)	2주일전 (0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2,400	36,200	42,320	↓ 12.2	↓ 24.9
	콩(백태)	35kg	177,800	177,800	178,200	149,000	160,067	↑ 19.3	↑ 11.1
	고구마(밤)	10kg	26,400	25,600	25,680	27,500	25,687	↓ 4.0	↑ 2.8
	감자(수미)	20kg	35,000	33,200	33,280	31,000	28,280	↑ 12.9	↑ 23.8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020	1,080	968	708	518	↑ 44.1	↑ 96.9
	양배추	10kg	13,800	13,400	13,880	7,050	6,170	↑ 95.7	↑ 123.7
	오이(다다기계통)	10kg	30,667	42,667	42,800	51,417	49,509	↓ 40.4	↓ 38.1
	애호박	8kg	22,000	32,800	26,600	39,050	35,400	↓ 43.7	↓ 37.9
	건고추(화건)	60kg	560,000	570,000	570,000	780,000	836,667	↓ 28.2	↓ 33.1
	풋고추	10kg	63,000	95,600	58,120	93,200	84,720	↓ 32.4	↓ 25.6
	마늘(깐마늘)	20kg	147,000	147,000	145,760	160,000	111,667	↓ 8.1	↑ 31.6
	양파	20kg	26,600	25,800	23,520	33,000	20,560	↓ 19.4	↑ 29.4
	당근	20kg	60,600	70,600	76,280	24,800	22,253	↑ 144.4	↑ 172.3
	대파	1kg	2,440	2,500	2,500	3,370	1,697	↓ 27.6	↑ 43.8
	파프리카	5kg	33,400	32,200	29,160	40,250	39,337	↓ 17.0	↓ 15.1
	딸기	1kg	12,000	12,600	12,880	14,400	11,937	↓ 16.7	↑ 0.5
	토마토	10kg	38,800	32,400	37,720	31,550	33,793	↑ 23.0	↑ 14.8
	방울토마토	5kg	20,600	19,600	29,320	24,450	22,393	↓ 15.7	↓ 8.0
	수박	1개	17,000	13,800	14,040	20,700	18,540	↓ 17.9	↓ 8.3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41,400	41,800	39,520	37,400	48,554	↑ 10.7	↓ 14.7
	배(신고)	15kg	39,400	40,000	39,600	46,550	46,557	↓ 15.4	↓ 15.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2/06)	2주일전 (0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3,000	523,000	523,000	529,000	547,333	↓ 1.1	↓ 4.4
	느타리버섯	2kg	13,400	16,800	13,400	15,050	13,873	↓ 11.0	↓ 3.4
	새송이버섯	2kg	9,600	10,600	8,800	10,950	10,060	↓ 12.3	↓ 4.6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591	7,691	7,905	8,205	6,629	↓ 7.5	↑ 14.5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73	1,964	1,881	1,846	1,709	↑ 6.9	↑ 15.4
	닭고기	1kg	5,058	5,022	5,059	5,058	5,298	-	↓ 4.5
	계란(특란)	30개	8,400	9,180	9,067	5,498	5,616	↑ 52.8	↑ 49.6
	우유	1리터	2,529	2,529	2,528	2,548	2,473	↓ 0.7	↑ 2.3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2. 06.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35 천원	5,294 천원	5,769 천원	↑ 2.7	↓ 5.8
	거세	6,304 "	5,369 "	6,713 "	↑ 17.4	↓ 6.1
송아지 (6~7월)	암	2,542 "	2,541 "	2,693 "	- 0	↓ 5.6
	수	3,108 "	3,136 "	3,271 "	↓ 0.9	↓ 5.0
육우(600Kg)		3,143 "	3,688 "	3,491 "	↓ 14.8	↓ 10.0
젖소수송아지(7일령)		114 "	112 "	197 "	↑ 1.8	↓ 42.1
돼지(110kg)		357 "	365 "	307 "	↓ 2.2	↑ 16.3
육계(원/kg)		1,784 원	1,298 원	1,745 원	↑ 37.4	↓ 2.2
계란(원/특란10개)		1,936 "	2,157 "	1,357 "	↓ 10.2	↑ 42.7
오리(원/kg)		2,333 "	2,333 "	1,667 "	- 0	↑ 40.0

※ 한우(거세우) 생산비 : 6,434천원/마리(△130) * (5,658 - 2,332 + 3,108 = 6,434)

(¹⁵년 생산비) (¹⁵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여성 주도 6차산업 농촌 활기

- 지난해 농촌 여성 창업 3개 사업 4억 9,000만원 지원 -

- 여수시(시장 주철현) 여성들이 6차산업에 뛰어들어 농촌에 활기를 북돋우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6차산업은 농촌을 활성화 시킬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농촌여성 창업활동을 지원사업으로 실시했다.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사업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분야는 나정숙 대표가 지난해 9월 ‘비렁길 자연밥상’을 개소해 남편 비렁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수의 맛을 알리고 있다.
-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분야는 한해경 대표가 지난해 12월 농업회사법인 『향유미가(주)』 개소식을 갖고 우리 콩을 이용한 두부·콩물·콩나물 등 농식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분야는 강현옥 대표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주삼동 쌀 생산단지와 연계하여 지난 1월 ‘뜨락농원’을 개소했다.
- 시 관계자는 “농촌여성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농산물 가공과 같은 다양한 교육을 수료하고 역량을 키웠다”며 “여성들의 6차산업 참여가 농촌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순천시, 고품질 매실 생산기술 지도 앞장

- 눈에 쏙쏙 들어오는 매실 재배 및 병해충 방제력 배부 -

- 순천시는 고품질 황매실 생산을 위해 『매실 재배·병해충 방제력』 4천부를 제작·배부해 순천매실의 유통시장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방제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특용과수를 위한 스마트 병해충 방제력 연구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제작했으며, 매실 재배력 및 병해충 방제편으로 구성됐다.
- 특히 매실 생산에 치명적 해충인 복숭아씨살이좀벌 일생에 따른 방제방법과 병해충 방제시기 및 적용 약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매실 재배 농가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실 가공 기술교육, 현장 컨설팅, 시연회 등을 통해 매실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순천시



■ 나주시, 188곳 농경지 토양환경 정밀분석 착수

- 귀농인 농작물 선택,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대책 수립에 기여 -

- 나주시가 올해부터 3년간 188곳 농경지에 대한 토양환경 정밀분석에 착수, 지역 토질에 적합한 작물정보를 제공하는 등 읍·면별 특화작목 제공에 적극 나선다.
- 시는 시정운영 방향 7대 기조 중 하나로 『지역별 농경지 토양환경 조사·분석 결과제공』을 제시한 가운데,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증가하는 자연재해와 토양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재배작물 제시에 나서기로 했다.
-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 10년간의 읍·면별, 작물별 대표필지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지역 토양환경을 재분석하고, 기상청의 『나주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 보고서』를 참고로 읍·면·동까지 상세화된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응용하여 지역별 토양환경 정보와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동네별 최적합 재배작물을 제시할 계획이다.
- 배기술지원과 이종권 과장은 “이 사업은 법정 리 단위의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 토양특성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읍·면·동별 기후변화 동향을 전망하여 동네별 최적합 재배작물을 제시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우리지역 귀농인들과 농업인이 농작물을 선택하는데 좋은 길잡이로서의 역할과, 효과적인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출처 : 나주시

■ 고흥군, 올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36억 투입

- 고흥군은 올해 받기반 정비, 배수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36억원을 투입해 비전5000 프로젝트 3대 목표 달성에 토대를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농업용수공급 및 배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영농환경을 개선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 군이 올해 추진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3건 등 총 19개 사업이다.
- 주요사업 지구는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25억원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14억원 등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
-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받기반 정비, 지표수보강개발, 대구획 경지정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17개소에 71억원을 투입한다.
- 이 밖에도 군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배수장 설치, 저수지 보수·보강 등 농업기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고흥군

■ 강진군, 자연이 주는 선물! 천연 짬맛 채소 『바라후』

- 새로운 소득 작목, 기능성 힐링 채소로 전국 수요 확산 -

- 강진군 강진읍 학명리 도원마을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바라후 (대표 김병조)는 2,240㎡ 4연동 비닐하우스에서 짬맛 나는 기능성 채소 『바라후』를 생산해 연간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짬맛채소 바라후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스와힐리어로 ‘수정’을 의미하고 겉모양 때문에 아이스 플랜트라고도 불리는데, 잎 표면에 투명한 결정체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 특히 항산화작용은 물론 지방연소·혈당조절 등의 기능성이 우수해 당뇨와 성인병에 좋고 천연 미네랄과 식이섬유, 자체 수분 등의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라후 잎과 줄기는 생식·생즙·쌈·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요리에 사용되고, 요즘 나트륨 과다섭취가 문제가 되는데 바라후는 나트륨이 체내에 잔류하지 않고 짬맛을 내는 천연 기능성 채소다.
- 지난 2014년 일본에서 국내 독점 재배기술을 이전 받아 재배를 시작해 바라후의 기능성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친환경인증까지 획득해 100g에 6천원으로 일반 신선채소류에 비해 3~4배 비싸지만 건강채소로 각광 받으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 강진군에서는 그동안 주로 식용으로만 이용되던 바라후의 노화방지·피부미용 기능성을 살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바라후 법인에 2015년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화 기업화사업비 4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330㎡ 규모의 화장품 원료 추출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어 참여농가의 소득이 기대되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출처 : 강진군

■ 영암군, 무화과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비 3억원 추가 확보

- 1년차 평가 우수 기관으로 2년차 사업 추가 선정 -

- 전국 최대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군이 『영암 무화과 명품화 기반 조성』을 위한 2017년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2년차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 영암군은 지난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3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고, 1년차 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년차 사업비 3억원을 추가 확보로, 연차적 추진을 통한 영암 무화과 명품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사업은 영암군 민선 6기 후반기 핵심발전 전략 중 하나인 생명산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유기농, 무농약 등 무화과 친환경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기존의 스티로폼 박스에서 벗어나 친환경 명품 이미지에 부합하는 종이 소재의 친환경 유통박스를 개발·보급할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최고품질의 명품 무화과를 생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영암군의 역점과제 중 하나인 농업의 6차산업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무화과 체험관광 농원을 조성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하여 생산·가공·유통·체험·교육·휴식 등 소비자가 찾아오는 관광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영암군

■ 함평군, 고품질 참깨 재배기술 교육 실시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로 농가 주의 당부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고품질 다수확 참깨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지난해 말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산 작목인 마늘·양파 후작으로 많이 재배되는 참깨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재배에 초점을 맞췄다.
- 강사로 나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의 임양빈 농업연구관은, 참깨류 농약 기준치가 종전 0.05mg에서 0.01mg/kg으로 강화됐으며 부적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 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농가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느냐에 품질 고급화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 부안군에서 온 이상원 강사는 참깨 다수확을 위한 배비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중점 설명했다. 또 사례 중심으로 참깨도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했다.
- 교육에 참석한 강철석 참깨연구회장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농약이 검출되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며 “달라진 기준을 꼭 준수해 고품질의 참깨를 생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생대추·참깨 등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작목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함평군

■ 영광군, 월동 후 맥류 재배관리 현장기술 지도 나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해 가을 잦은 강우와 따뜻한 날씨로 12월 중순까지 늦게 파종하여 보리 생육이 전반적으로 불균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기술지도에 나섰다.
- 맥류 생육조사 결과 적기에 파종한 포장에서는 따뜻한 겨울날씨 영향으로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등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11월 말 이후 파종한 필지는 생육이 저조하여 생장점 동해가 우려되는 등 보리 생육이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겨울철 잦은 강우로 황화현상 등 습해 피해가 나타나 배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광군의 평균 보리 생육재생기는 2월 10일로, 올해처럼 파종시기가 다르고 생육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생기를 전후하여 웃거름은 2회로 나누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 보리밭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오는 습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논두렁 주위와 포장 중앙에 배수구를 깊이 파고 논 양끝의 붓머리를 터주어야 한다.
- 한편 지난해 맥류 파종시기를 놓쳐 봄파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찍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지역은 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가 적당하며 파종량을 가을파종 보다 20~30% 늘려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맥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월동기와 생육 재생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파종 시기별로 생육상황을 꾸준히 관찰하여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 완도군, 방울토마토 본격 출하

-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해 상표 출원한 방울토마토인 『스마토』가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되고 있다.
- 완도에서 바이오기능수와 유용미생물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는 『스마토』는 해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당도가 9~10°Brix로 일반토마토보다 2~3°Brix가 높고 색택이 좋으며 육질이 단단하다. 저장성 또한 일반토마토 보다 3~4일 가량 더 길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킬러푸드 열풍이 일면서 슈퍼푸드로 사랑받고 있는 방울토마토는 비타민 B와 C가 풍부해 기미·잡티 제거에 효과가 있다. 또한,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이고 있는 라이코펜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위암, 폐암, 전립선암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다.
- 『스마토』는 완도군 군외면 일원에서 연간 200여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과 광주 공판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 완도군 관계자는 “스마토는 품질이 뛰어나 서울 가락시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보다 20% 정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완도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광양, 알스트로메리아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일본 수출시장 개척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국내 꽃 전문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제이에프를 통해 광양 절화 알스트로메리아를 일본으로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전남농업기술원은 작년부터 절화 알스트로메리아 일본 수출을 위해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및 화훼 수출업체인 (주)제이제이에프와 도내 재배농가들과 수출조건, 수출단가 등 협의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선 광양에서 생산되는 절화 알스트로메리아를 샘플로 50박스(2,000본)를 일본으로 보내는 등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 특히 광양의 절화 알스트로메리아는 여름철 근권 환경관리 등 온도 조절 기술을 위해 쿨링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배함으로써 조기 수확은 물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 전남의 대표 수출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업체, 농가, 관계자 수출협의회】



【알스트로메리아 재배농가 컨설팅】

- 전남의 절화 알스트로메리아는 30농가가 9ha를 재배, 전국의 6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광양의 알스트로메리아는 1주일에 5만본 정도가 서울 화훼 공판장 등에 출하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알스트로메리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규격품 생산 및 검역, 농약안전성 등 전문가 합동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황수정 기술지원국장은 “이번 알스트로메리아 일본 수출을 통해 국내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가능한 전략작목 발굴과 전문수출단지를 집중 육성하고, 현장애로 기술개발과 컨설팅으로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품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이 확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한국 김치, 지난해 대중국 수출 역대 최대 규모 달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중 수교 이후 대중국 김치 수출액이 ‘16년에 가장 많았으며, 중국을 포함한 김치 수출총액도 ‘16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 대중국 김치 수출액 : (‘14) 16천달러→(‘15) 101→(‘16) 441
 - 전체 김치 수출액 : (‘14) 84,033천달러→(‘15) 73,546→(‘16) 78,900
 - 전년대비 수출증가 국가 : 미국(17%↑), 대만(8.3%↑), 일본(5.7%↑) 등
- 대중국 김치 수출이 증가된 배경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15.11.19일부터 자국의 김치 수입위생기준을 개정하여 대중국 김치 수출을 재개한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 그동안 중국 정부의 엄격한 김치류 수입위생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 김치의 수출이 매우 어려웠으나, 우리 정부가 발효과정에서 대장균이 사멸하는 발효식품의 과학적인 특성을 감안한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를 수용한 것이다.
- 전체 김치 수출 총액이 증가한 이유는 대중국 수출 증가와 더불어, 엔화 등 환율의 증가 및 시장개척, 한인마켓 증가 등으로 인한 미국·대만·일본 등 기존 우리나라 김치 주력 수출국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의 호조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관계 부처, 산업계 및 연구계 등이 함께 김치 수출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케일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분석

□ 개발기술 내용

- 10a당 소득은 유기재배 6,598,785원, 무농약재배 6,250,800원으로 일반재배 5,268,178원에 비해 각각 25.3, 18.7% 증가함
- 10a당 노동시간은 유기재배 132.4시간, 무농약재배 125.8시간으로 일반재배 101.4시간에 비해 각각 30.6, 24.1% 증가함

【케일 친환경인증 유형별 수익성】

(기준 : 년 1기작, 원/10a)

구 분	일반재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생산량(kg)	2,987(100.0)	2,745(91.9)	2,875(96.3)
판매가격(원/kg)	2,754(100.0)	3,654(132.7)	3,312(120.3)
조수입	8,226,198(100.0)	10,030,230(121.9)	9,552,000(115.8)
경영비	2,958,020(100.0)	3,431,445(116.0)	3,271,200(110.6)
소 득	5,268,178(100.0)	6,598,785(125.3)	6,250,800(118.7)
총 노동시간(시간)	101.4(100.0)	132.4(130.6)	125.8(124.1)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케일 친환경재배(유기재배, 무농약재배) 희망농가의 유형별 재배 방법 선택 시 의사결정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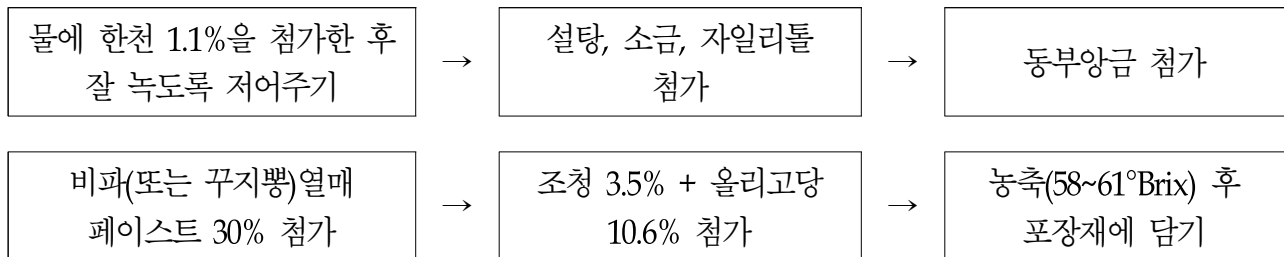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결정 자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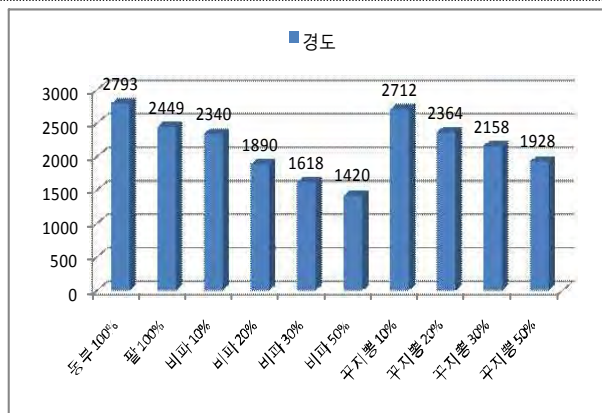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박 신

동부양금을 이용한 저당도 동부양갱 제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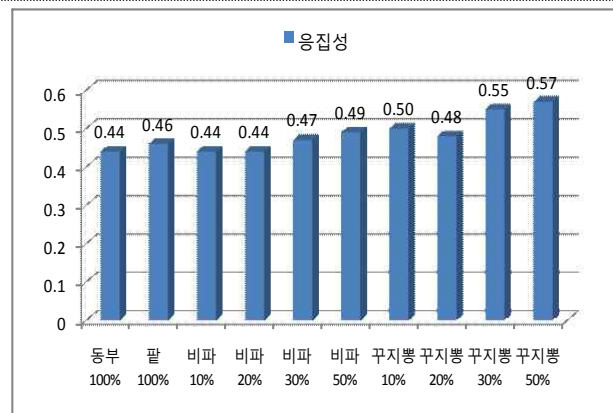
개발기술 내용



【동부양갱 제조공정】



【양갱의 경도 비교】



【양갱의 응집성 비교】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국산동부 양금을 팔양금의 대용 소재로써 가능성 제시
- 지역 농·특산물과 국산동부 양금을 이용한 양갱의 품질특성 자료제공

기술개발 파급효과

- 소비자의 친환경 기능성 양갱에 대한 요구 충족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강정화

■ 농산물 꾸러미 사업 초기 소요자금과 참여농가 소득향상 효과

□ 개발기술 내용

- 농산물 꾸러미사업 운영 형태별 초기 필요 자금은 산물수집형 8,650만원, 1차가공형 10,650만원, 6차산업형은 12,550만원이 소요됨
- 꾸러미사업 운영형태별 참여농가 소득은 법인 꾸러미사업체가 3.6%, 개인운영 꾸러미업체 3% 증가함

【꾸러미사업 운영 형태별 참여농가 수익 변화】

(단위 : 만원)

꾸러미사업 참여농가 총판매액			꾸러미 판매비율	꾸러미사업 참여 전·후 수익 변화			
				참여 전 매출액(A)	참여 후 매출액(B)	증가액 (B-A)	증가율
법인	식량	32,303	43.2	6,604	7,767	1,163	
	채소	16,101	21.5	3,287	3,866	579	
	과수	11,748	15.7	2,400	2,823	423	
	특용	6,128	8.2	1,254	1,474	221	
	축산	8,468	11.4	1,743	2,050	307	
	계	74,746	100.0	15,288	17,980	2,692	전체소득액 3.6%증가
개인	식량	1,593	10.4	219	268	49	
	채소	5,683	37.1	781	957	175	
	과수	2,159	14.1	297	364	67	
	특용	3,551	23.2	489	598	110	
	축산	2,344	15.2	320	392	72	
	계	15,329	100.0	2,106	2,579	473	3.0%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신규창업 꾸러미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투자 및 소요자금 컨설팅 정보제공
- 지방자치단체 꾸러미 재정지원 근거자료 활용

□ 기술개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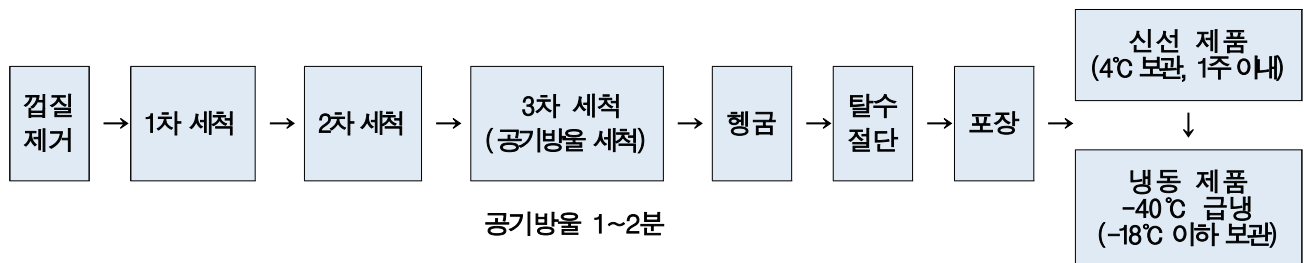
- 농산물 꾸러미 사업 형태별 맞춤형 재정지원과 효과 규명으로 지방자치단체 꾸러미 사업 활성화 기여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 신선 및 냉동 대파 상품화를 위한 세척 전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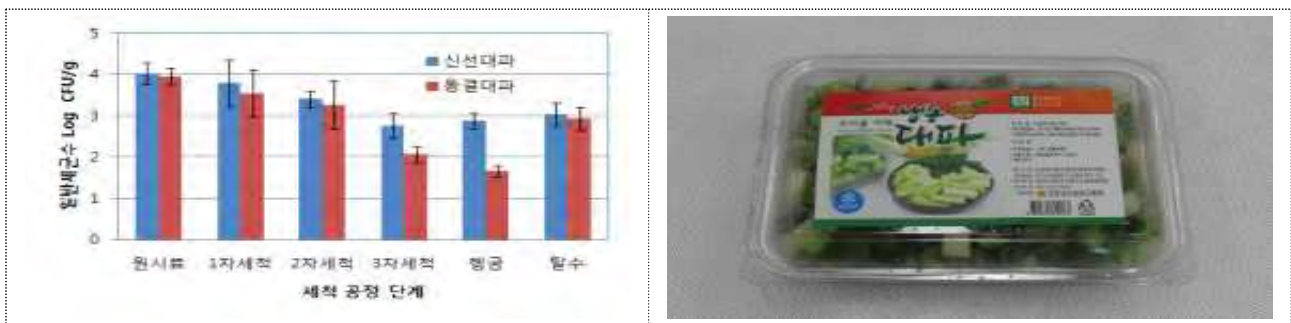
□ 개발기술 내용

○ 신선 및 냉동 대파 상품화를 위한 세척 전처리 공정



– 껍질 제거 대파의 10배 수돗물로 3회 세척 및 헹굼, 탈수 후 포장, 냉동 제품화

○ 신선 및 냉동 대파 상품화를 위한 제품 라벨 제작 및 시제품 제조



□ 개발기술 활용 및 보급계획

○ 도내 주생산지 가공업체에 기술지원으로 상품화 추진

○ 전남 친환경재배(무농약, 유기농) 대파로 차별화된 냉동 상품화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수급 안정을 위한 대파 냉동 제품화로 소비촉진 및 가격 안정화

– 대파 생산량의 약 10% 냉동 제품으로 유통 시 연간 약 50억원 이상 효과

· 폐기율 감소, 쓰레기 감소 및 재배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 등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오봉운

■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검정보리 특산화 주력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올해부터 우리 도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검정보리의 안정생산과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특산 작목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전남대학교의 관계자와 해남 미맥사업단의 맥류 재배 농업인이 함께 모여 해남 한맥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협의회를 가졌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로 생산 예정인 검정보리 420톤에 대한 수매·가공 및 전국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맥류 품종육성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관계자로부터 해남 등 전남에서 특화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정보와 순도 높은 종자 확보를 통해 고품질 보리 생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흑수정찰보리』는 베타글루칸(세포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체지방형성과 축적을 억제하는 성분) 함량이 높고 수량성이 높은 검정 찰성 겉보리로 2015년에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이다.
- 전남농기원은 기능성 맥류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한맥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성용)이 농촌진흥청과 흑수정찰보리 품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농촌진흥청과 전국 최초로 협약하도록 하여 자체 종자 증식을 통해 작년 가을에 120ha를 파종하였다. 작년 가을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이 늦었지만 겨울철 따뜻한 기온으로 현재까지의 작황은 양호한 편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ICT 접목 에너지·노동력 절감 패키지 기술 개발 추진

- 난방연료비 80, 노동력 20 절감, 생산성 10% 향상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지속적인 일조부족 및 저온으로 시설하우스 작물작황이 좋지 못하고 난방비도 늘어나고 시설하우스 농가 조수익의 60%이상이 생산비로 지출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ICT를 접목한 에너지·노동력 절감 패키지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에 추진하는 생산비 절감 패키지 기술은 그림자가 지지 않아 수광량을 늘릴 수 있는 기어식 상부개방형 다겹보온커튼, 냉수와 온수를 모두 생산해 겨울에는 저비용 난방을, 봄과 여름에는 냉방이 가능해 고온기 생산기간을 연장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축열식 공기열히트펌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기장치, 난방기 등 다양한 장비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융합한 기술이다.
- ICT 복합환경제어장치의 장점은 비닐하우스의 1중 및 2중 개폐장치, 유동팬, 보온커튼, 수막, 히트펌프, 난방용 팬코일 등을 복합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에너지 절감효율을 극대화하고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노동력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년도 연구결과, 에너지절감 패키지로 실증된 『상부개방형 다겹보온 커튼과 축열식 공기열히트펌프』의 겨울철 난방비용 절감효과는 등유보일러와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만 사용하는 농가 대비 약 74%가 절감되었으며, 이중 상부개방형 다겹보온커튼은 권취식 보온커튼에 비해 수광량을 약 12%가량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개발된 위 기술에 ICT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금년도에는 난방연료비는 6%를 더한 80%를, 노동력은 20% 절감을 예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생산성도 10% 가량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전남농기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연구사는 “시설원예분야는 매년 인력 부족 및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난방에너지 비용 과다 등 생산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에너지절감기술의 패키지화와 ICT기술 접목연구로 농가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국 산업곤충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열다

- 산업곤충 교육으로 미래농업자원에 대한 농산업화 기반조성 기대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산업곤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곤충사육 실습교육이 열린다.
- 이번 교육은 새로운 소득개발원으로 기술 집약적인 산업곤충 사육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곤충사육 기술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 기술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촌진흥청 TOP 5 조기 성과달성을 위한 기술보급 연계 방안으로 산업곤충 지도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되었다.
- 전남 장성에 있는 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에서 열리게 되는 산업곤충 담당자 교육은 전남뿐만 아니라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각 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농촌지도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2차로 나누어 2일간씩 실시하며, 산업곤충의 식용·약용·사료·교육·체험·힐링 등 농산업 가치사슬 창조와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식량, 원예, 축산이라는 고정 틀에서 탈피하여 신소득원을 모색하고 현장 지도자 확보와 전문 강사진을 구축하고자 실습 위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주요 교육내용은 곤충사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갈색거저리, 벼메뚜기, 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등 최근 식품원료로 등재된 곤충들에 대한 채란, 종충사육, 사료와 배지 관리기술, 병 예방 등 대량사육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이며, 교육 전·후 평가와 설문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 또한 산업곤충 사육 우수현장을 견학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감자 봄 파종은 이렇게 하세요

- 농촌진흥청, 감자 싹틔우기와 파종 시 싹의 방향 등 영농기술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봄철 감자의 안정 생산을 위한 올바른 싹틔우기 방법과 파종 시 싹의 방향에 대한 영농기술을 소개했다.
- 우리나라는 감자 수확기에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생육기간이 짧아 생육과 수량이 불안정 하지만, 감자를 그늘에서 싹을 틔워 심으면 생육기간을 20~30일 더 늘릴 수 있어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 차광망을 이용해 그늘에서 싹틔우기



▲ 싹이 적당히 자란 모습의 씨감자

- 그늘에서 감자 싹을 틔우는 작업은 싹의 길이가 1~2cm 정도 될 때까지 25~35일 정도 실시한다.
- 씨감자의 양이 적을 때는 바닥에 감자를 얇게 펴 놓으며, 양이 많을 때는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2~3단 정도 엇갈리게 쌓아 둔다.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2~3일에 한 번씩 상자의 방향을 바꿔준다.
- 싹틔우기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30~50% 차광망을 덮은 뒤 진행한다.

- 낮에는 환기를 시켜 온실 내부 온도를 15~20℃ 정도로 유지하고 밤에는 얼지 않도록 덮개를 이용해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습도 유지를 위해 하루 한두 번 바닥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좋다.
- 싹을 틔운 감자는 심기 일주일 전 약 30~40g 정도 크기로 잘라둔다.
- 씨감자를 자를 때는 한쪽 당 한 개 이상의 눈이 있어야 한다. 사용하는 칼은 감자를 자를 때마다 끓는 물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해 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균의 전염을 막아야 한다.
- 씨감자를 심을 때 씨감자 싹의 방향에 따른 수량성 차이는 거의 없다.
- 씨감자를 파종 시 싹의 방향을 위로 했을 때 출현이 다소 빠른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파종 뒤 일수가 진전됨에 따라 수량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따라서 영농에 드는 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종 시 일부러 싹의 방향을 위로 가게 심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구본철 소장은 “싹을 틔워 감자를 심으면 감자 재배기간이 길어져 수확량이 10% 이상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감자 싹이 빨리 올라와 토양전염성 병해충 피해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고구마 묘기르기, 건전한 씨고구마 선별이 중요

- 농촌진흥청, 올바른 고구마 묘 기르기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씨고구마 파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올바른 고구마 묘 기르기 방법을 소개했다.
- 고구마 모종을 본답에 삽식해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 초기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고구마 싹이 굵고 마디 간격이 짧으며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은 모종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구마 묘기르기에 적당한 씨고구마의 크기는 150~200g 정도이다. 육묘상 면적은 본밭 10a 삽식을 기준으로 10m² 필요하며, 종자량은 70~100kg 정도를 준비한다.
- 씨고구마는 검은무늬병, 무름병에 감염되지 않고 냉해를 입지 않은 건전한 것으로 선별해야 한다.
- 씨고구마를 묻을 때 고구마 사이 간격은 5cm, 줄과 줄 사이 간격은 10cm 정도 띄워주는 것이 좋다. 또한 머리쪽(고구마 줄기가 달려 있던 부분)에서 싹이 나므로 한쪽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싹이 고르게 자라 순자르기 작업이 편리하다.
- 건강하고 병 없는 고구마 모종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품종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파종해야 한다.
- 분질고구마(밤고구마)인 울미·진홍미·다호미는 5~10cm, 중간질고구마(밤호박고구마)인 호감미·풍원미는 2~5cm 이내로 파종했을 때 줄기 직경이 3mm 이상인 건강한 고구마 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

- 품종별 적정 간격 파종 시, 씨고구마 양을 밀식 파종 대비 31% 절약할 수 있고, 본답에 건강한 모종 삽식으로 덩이뿌리 수량을 약 39% 높일 수 있다.
- 고구마 싹이 잘 트기 위해서는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 토양 온도를 30~33℃로 유지하고, 싹이 튼 뒤에는 23~2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모판흙(상토)은 마르지 않게 관리하되, 지나치게 습할 경우 고구마가 썩거나 흰비단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병에 걸린 고구마는 주변 흙까지 파서 버리고 다른 고구마로 다시 심어야 한다.
- 본답 삽식 혹은 모종 증식을 위해 싹을 자를 때에는 묘의 밑동 부분 2~3마디를 남기고 잘라야 새싹이 돋아나기 쉽고 검은무늬병 전염을 억제할 수 있다.
- 묘를 자른 뒤 요소 1%액을 1m²당 1~2ℓ를 주면 싹이 나는데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정응기 소장은 “고구마재배의 성패는 고구마 묘 기르기부터 시작되므로, 씨고구마 선별과 관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과수 가지치기 작업도구, 소독 후 사용하세요

- 소독용 알코올 등 소독으로 병원체 전염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과실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을 준비할 때 작업도구를 소독하는 것으로 과수 병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과수에 발생하는 주요 관리 세균병해와 바이러스 병해는 가지치기 작업 중 작업도구로 감염 될 수 있으므로 작업에 앞서 도구 소독이 중요하다.
- 가지치기 작업도구 소독약제는 소독용 알코올(물 300, 알코올 700ml /1리터 제조, 희석비율 알코올:물=7:3)을 사용하거나, 시판 중인 락스류를 구매해 희석(물 950, 락스 50ml/1리터 제조, 희석비율 락스:물=1:19)하여 사용하면 된다.
- 소독대상은 가지치기 가위, 톱뿐만 아니라 작업복, 작업화, 작업용 사다리도 소독해야 한다.
- 가지치기 가위와 톱은 소독약제에 30초 이상 사용부위를 담근 뒤 사용해야 하며 작업복, 작업화, 작업용 사다리는 소독액을 분무기에 담아 뿌리면 된다.
- 특히, 사과나무에 발생하는 바이로이드(Apple scar skin viroid, ASSVd)는 가지치기 작업 중 발생하는 줄기 상처에 작업도구에서 묻은 즙액으로 전염된다.
- 소독을 하지 않은 가위 사용 시 60~70% 정도의 전염률을 보인다.

※ 가지치기 도구 및 작업복 소독방법



▲ 전정가위 소독(30초간 침지소독)



▲ 전정톱 소독(30초간 침지소독)



▲ 작업장갑 소독(분무기 사용)



▲ 작업화 소독(분무기 사용)

- 가지치기나 접붙이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락스액이나 2%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바이로이드 병의 전염률을 낮출 수 있다.
- 따라서 과수 가지치기에 사용하는 도구들과 작업복, 작업화를 소독용 알코올이나 락스를 활용해 소독함으로써 나무에서 월동 뒤 전염되는 병해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백창기 농업연구사는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해 및 바이로이드 병해의 예방을 위해서 가지치기 작업 도구의 소독이 꼭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우리 한우농장! 번식률 높이는 방법은

- 발정관찰기구 활용 생산율↑, 예방접종 하면 폐사율↓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한우산업의 생산과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한우 번식률 향상을 위한 농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번식소(번식우) 관리 기술을 제시했다.
- 이번 조사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한우의 번식률 저하 원인을 밝히고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직접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 대상은 총 45농가, 1859마리이며, 사육 마릿수에 따라 소(20마리 이하), 중(20~50마리), 대(50마리 이상) 규모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 한우의 최초 분만월령은 평균 28.7개월령으로 늦은 편이었으며, 임신(수태)당 인공수정 횟수는 1.45회였다.
- 분만 후 평균 인공수정 일수는 119.8일이었고, 수태율은 소규모 농가가 75.2%로 중규모(70.6%)나 대규모(71.4%) 농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률 상위 농가의 사육 방식을 보면, '발정 관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송아지 생산율이 10.42% 높았다. 번식소에 대해 예방접종(IBR, BVDV)을 실시한 농가는 유사산폐사율이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 발정관찰 보조기구를 적절히 활용하되, 발정과 수정을 기록해 다음 발정일을 예측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한우리 시스템(hanwoori.nias.go.kr)』을 이용하면 수정부터 분만까지 번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8. 정책 동향

◆ 대한민국 차(茶)시장을 선도하는 『전남 유기농 녹차와 홍차』

- 차(茶) 생산농가와 국내 커피 판매업체 상생협력 시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26일 차산업연구소에서 한국차중앙협의회, 농식품상생협력본부, 스타벅스, 차농가 등 함께 모여 앞으로 국내 차산업활성화 및 차제품생산 다각화 하고자 차(茶) 관련 기관과 단체별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회를 가졌다.
- 차(茶)관련 기관과 단체별 상생 협의회는 차 생산농가와 차 전문 유통판매 업체 간 상호협력 방법을 모색하여 새로운 6차산업화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남지역 유기농 녹차와 홍차 제품으로 국내·외 차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차 생산농가와 차 유통판매 업체 간 협의회는 커피박 유기질비료 지속적인 공급 및 사용방법, 전남산 차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차밭 관리, 적기수확, 품질 기준, 차 적정 구매방법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차산업연구소 박장현 소장은 “앞으로 차 전문 유통업체와 전남산 유기농 차 제품의 지속적인 차 구매, 품질 유지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상생협력하여 차농가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도,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가격 공표

- 194개 업체 생산제품 적정가 공급지도 -

- 전라남도가 우수 친환경 농자재를 적정가격에 공급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기 위해 지역 1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가격을 조사해 공표했다.
-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가격은 지난 1월부터 전남소재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료비, 제조비, 유통비 등을 기초로 업체에서 산정한 것을 조사한 것이다.
- 전라남도는 이번에 공표한 친환경 농자재 판매 희망가격을 친환경 실천 농가에서 비교·구매하도록 누리집 등에 공시하고 각종 교육,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적정가격에 판매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전남지역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는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4년 39개소에 불과했으나 올해 초 기준 194개소로 155개소가 늘었다. 이들 업체의 종업원 수도 214명에서 764명으로 550명이 늘어났다.
- 전남지역에는 2017년 1월 현재 새끼우렁이 생산업체 95개소와 유기질 비료 53개소, 미생물제제 35개소, 기타 11개소의 친환경 농자재 생산업체가 가동되고 있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역 업체에서 양질의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해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인들은 도내 업체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저비용 유기농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 본격 시동

- 토마토·한우 등 4개 협력단 사업계획 검토협의회 개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2일 대학교수,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협력단별 사업계획 검토협의회를 가졌다.
- 성과목표는 회원농가의 소득 10% 향상과 만족도 90%이상이다. 회원 농가는 각 협력단에서 컨설팅 또는 교육 효과가 높은 도내 농업인 100여명을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자가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남지역에서 육성하는 지역 전략품목은 토마토·한우·오리·쌀이며 대학교수, 선도농업인, 농업관련 산업체 등 150여명의 기술전문 위원이 일선현장에서 종합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 협력단에서는 토마토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호당 소득이 51,000천원에서 70,000천원으로 36%가 향상되었으며, 버섯배지, 미강 등 농림부산물물을 사료화하여 한우 경영비 4%를 절감하였다.
- 또한, 전남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한전, 농촌경제연구원 등 혁신도시에서 쌀빵 나눔행사를 추진했으며 쌀파스타·쌀동그랑땡·쌀스낵 등 10종을 개발하여 상품화 했다.
- 특히, 금년에는 지역 전략품목 생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유통·마케팅, 농촌체험, 상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참깨·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참깨·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도 2016.12.31.부터 전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 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 조사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써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써 부적합률이 5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 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9. 해외 농업정보

◆ 농촌진흥청, 글로벌 농업 청년리더 70명 선발·파견

- 베트남 등 20나라 KOPIA센터에서 역량강화 기회 주어져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의 하나로 2017년 상반기에 선발한 연구원 및 연수생 38명을 KOPIA센터로 2월 1일 파견한다.
- 이는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의 하나로, 해마다 100명 내외로 농업분야 인재를 선발해 20나라에 설치된 KOPIA센터에 파견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총 70명을 파견해 글로벌 농업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 KOPIA센터에 파견된 연구원 및 연수생들은 농촌진흥청이 현지 농업연구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국제적인 농업 환경을 경험하며 다양한 농업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 연구원 및 연수생들은 해외실습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실습 등 전공 능력을 키우고, 주재국의 농산업 현황을 분석하며 글로벌 농업 환경을 경험한다. 또한, 영어·스페인어·불어 등 국제공용어 및 현지어 강습을 받으며 글로벌 청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을 현지에 전수하는 KOPIA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일본 유전자변형식품 대상 확대 검토

- 일본 소비자청은 콩이나 옥수수 등 8종류의 작물이 사용된 낫토·두부·스낵과자류 등 33종류의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류의 표시의무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 2017년도 식품업계나 소비자단체 등을 축으로 전문가 검토회의를 마련하여 거론할 예정이다. 이는 GM작물 혹은 가공식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식품을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현재 일본 정부 심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GM작물은 8종류이다. 그것을 원재료로 하는 33종의 식품은 현행 제도상 중량 비율이 『상위 3위 이내로 5%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 경우』에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GM작물과 타 원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유전자 변형 불분별』이라 표시한다.
- GM작물의 사용중량이 적어 한 상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상위 4위 이하이거나 5%미만일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다. 간장·드레싱·식용유·콘플레이크 등 발효나 증류, 열처리 등의 공정으로 변형된 유전자가 분해, 제거되어 검출되지 않는 식품도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니다.
- GM작물이 사용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도치 않게 소량이 혼입된 식품은, 임의로 『유전자변형이 아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
- 소비자청은 미국과 캐나다산 유입콩과 옥수수를 대상으로 그 혼입된 비율이나 유럽연합의 표시 제도를 조사하고 있어, 검토회의에서 중량비율의 상위 3위 이내임과 동시에 5%이상이라는 기준은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2. 06.(시카고 선물거래소)

지난 며칠간 상승세 이후 시장 숨고르기로 다시 하락한 밀 선물 가격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7.2.3)	전일대비	전월평균 ('17.1)	2016 평균
밀	158.07	▼1.0%	156	160
옥수수	143.77	▼0.6%	142	141
대두	377.35	▼1.0%	380	363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3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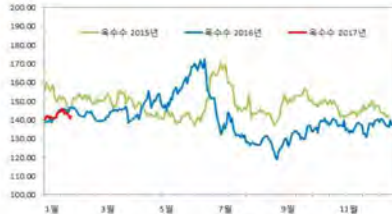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 가격은 목요일 상승한 이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금요일 다시 하락하였음. 풍부한 국제 공급과 북반구의 겨울 날씨가 휴면 작물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가격 하락에 압력을 더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의 하락세에 이어 다시 소폭 하락하였음. 3월물 옥수수 계약이 핵심 기술적 포인트인 200일 이동평균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서 상승과 하락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음. 그러나 옥수수 펀드의 매수세 및 달러화 약세로 인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승세를 타고 있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소폭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음. 풍부한 국제 공급량은 가격 하락을 지지하였음. 그러나 기술적 매수자들이 세션 후반 상승 국면으로 가격을 밀어붙이면서 가격 하락은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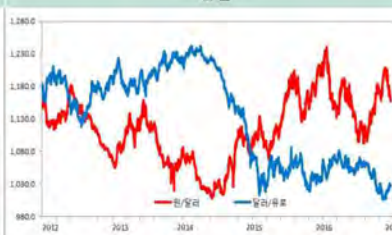
관련동향

- 옥수수 베이스는 생산자들의 판매 증가와 CIF barge price 약세 등으로 하락세,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활발한 수요는 하락세를 제한.
- 3월 국제유가는 미국의 對이란 추가 제재 부과, 미 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였고,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등은 상승폭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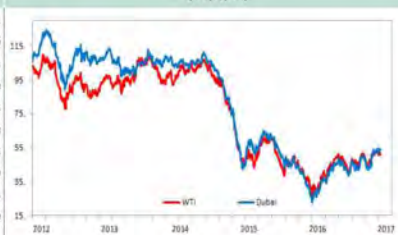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189	—		원/달러	1,149.2	▼0.5%
	옥수수	169	▼1.2%		달러/유로	1.0762	—
	대두	398	—		WTI	53.83	▲0.5%
	쌀	365	▼0.3%		Dubai	55.45	▲0.9%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3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7.02.02(수출가격), '17.02.03(환율), '17.02.03(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라남도는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3개월간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밭농업직불금 가운데 논에 이모작으로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3월 10일까지 조기 마감된다.
-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면 할 수 있고,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이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고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하면 된다.
-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 자급률 제고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지급단가는 ha(3천평)당 고정직불금 100만원,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 지급한다.
- 밭농업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 ha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5만원이 인상된 규모다.
- 또한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것으로, 20% 마을공동기금을 포함해 ha당 농지는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각각 5만원 인상됐다.

*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전남도, 16일까지 접수... 해외 판촉에 기업당 최대 2천 500만원 -

- 전라남도는 농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촉진을 위해 『2017년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16일까지 희망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농가와 농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해외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전라남도가 소요 경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이다.
- 지원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농가 또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 수출 중소기업이다. 해외에서 전남산 농산식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체도 가능하다. 다만 해외 유통업체는 반드시 전남에 있는 수출농가 또는 수출업체가 생산한 농산식품을 수입해 판촉행사를 해야 한다.
- 참가업체는 행사품목 수, 수출규모, 행사기간, 행사매장 수, 현지 유통업체 규모, 자부담 비율, 현지 시장 개척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된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행사매장 임차비, 장치비, 판촉요원 고용비, 홍보비 등 판촉에 필요한 총경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천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총 사업비의 200%이상을 수출해야 한다.
- 신청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 등을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로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http://jexport.or.kr>)을 참고하거나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2)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올해 사용할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 봄에 파종할 콩 보급종을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 이번에 공급할 콩 보급종은 모두 5품종 1,326.2톤으로 장류 및 두부용 콩인 대원 972톤, 태광 124톤, 우람 84톤, 진풍 8톤 및 나물콩 재배용인 풍산나물 138.2톤이다.
- 금년도 콩 보급종 공급가격은 22,580원(5kg/1포대)으로 소독과 미소독 종자가격이 동일하며, 종자공급은 '17.4.3일부터 5.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종자원은 벼 보급종 9품종, 1,354톤을 2월 1일부터 벼 육묘기까지 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 또는 전화신청을 통해 개별신청을 받는다.
- 신청 가능한 품종은 윤광 531톤, 동진찰 267톤, 일품 206톤, 추청 135톤, 조평 102톤, 삼덕 66톤, 오대 40톤, 오류 4톤, 맛드림 3톤 등 1,354톤이다.
- 이번 종자신청은 지역별로 신청 가능한 품종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농업경영체는 종자신청 전에 종자신청 기관에 문의하면 『정부 3.0』 취지에 맞게 신청 가능한 품종 안내 및 재배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구제역!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구제역! 철저한 '백신접종'과 꼼꼼한 '차단방역'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질병예방법 입니다 -



주간

전남농업정보

122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